

리서치팀

☎ 82-2-3774-0451

1. 통화전망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075원~1,100원

방향성: 약보합

금주 환율은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증시 순매수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통화대비 강세 폭을 키워간 레벨에 대한 부담감에 하단 지지되며 약보합권 등락을 전망. 지난주 금융시장에는 환율 강세 재료가 우위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1080원을 앞두고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위안화 환율도 역외 시장에서 달러당 6.5위안까지 내려오며 환율 하락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

다만 11월 이후 달러/원 환율은 주간 과 매도권에 들어서는 등 기술적 부담은 환율 하락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최근 외국인 증시 순매수세에 힘입어 환율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뉴욕증시 주시하며 환율 방향성 탐색할 것으로 보임. 또한 월말 얇은 거래량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달러/원 강세 재료가 많을 경우, 역외 환율 매도세 낙폭 키워갈 수 있는 점 유의. 한편 주요 경기지표로 중국 CPI, PPI 발표에 따른 위안화 변동 주시.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200~1.225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유로/달러는 그간 가파르게 낙폭을 키워간 미 달러 레벨에 대한 부담과 금주 10일 예정된 ECB회의에서 정책 발표가 유로화 강세를 제한할 가능성에 약보합권 등락을 전망. 백신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미달러는 가파르게 낙폭을 키워갔음. 다만 지난주에 화이자 백신의 올해 목표 물량 생산 차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같이 생산과 유통과 관련한 돌발변수가 등장할 위험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를 제한할 수 있음. 금주 ECB회의에서 ECB는 정책금리 동결이 예상되며 자산매입 확대와 연장여부, TLTRO확대 여부, 정책점검과 관련한 언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이에 ECB결과에 주목하며 유로화 방향성 정해질 것으로 보임.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550~0.9650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엔/달러는 백신의 원활한 보급과 일본 정부의 3차 경기부양책 발표를 기대하며 약 보합권 등락을 전망. 미국 식품 의약국 자문위가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 17일 모더나 백신 승인 방안을 논의될 예정. 이에 백신 승인과 보급 기대감이 약세 재료로 작용. 다만 지난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약세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등락한 엔/달러는 금주 백신 유통과 관련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 미국 내에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세 우위 속 방향성 탐색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지수전망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500~3,800 pt

방향성: 강보합

금주 뉴욕증시는 미국 재정 부양책 타결 여부에 따라 강 보합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오는 11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부양책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추가 재정 투입에 따른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미국 추가 부양책에 이어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는 모습. 한편 금주 ECB는 추가 부양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ECB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 확대 등이 기정사실화된 모습. 지속되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부양책 시행과 백신 낙관론이 경제 정상화 기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투심을 자극. 다만, 미국 내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주요 지역에서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은 증시 상단을 제한할 것.

3. 상품전망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43~48.00 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WTI가격은 주요국의 보편적 백신 보급과 접종에 대한 기대감에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지난 주 Opec+ 는 내년 1월부터 산유량을 하루 5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한 직후 WTI등 유가는 상승 반전. 감산 규모를 770만bpd에서 580만bpd로 줄이는 합의를 3개월 연기한다는 기대는 줄었지만, 증산이 아닌 점에 시장 참여자들은 안도. OPEC+는 이번 결정을 통해 향후 국제유가 상승 속도 조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음. 한편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러시아, 터키, 벨기에와 스웨덴에서 차례로 백신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승인과 배포, 접종이 기대되는 점도 유가에 강세요인으로 작용.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00~1,880USD

예상 레인지: 20.00~25.00 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금 가격은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확장적 재정 정책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앞다툼 유동성 정책을 소화하며 강 보합권 등락을 전망. 금은 무이자 자산인 만큼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금의 투자 매력은 높아지는데,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한 차입비용은 적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실질 금리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에 인플레이션을 감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받게 됨,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대책에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까지 하락한 점은 원자재(골드와 실버)가격 지지 요인.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